특별기고

FTA 단상

류 봉 걸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우리는 반세기 전인 지난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왔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실행을 통해 초보적인 경공업 중심에서 1970년대 중화학 공업으로 탈바꿈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8일 빠른 11월28일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세계 무역규모 7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우리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정부는 무역확대를 위해 2004년 4월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7개국과 FTA를 발효시켜 우리의 경제영토를 세계 GDP의 61%로 확대했다. 또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 협상타결 후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 30개월간의 치열한 실무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13억 거대시장의 빗장을 풀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 한·EU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세계 GDP의 73%에 해당하는 경제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중 FTA는 우리경제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첫째,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둘째, 중국시장을 겨냥한 미국 및 유럽 등 외국의 국내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셋째,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돼 한류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협정문은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우리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두는 공산품 부문의 주요 내용은 협정발표 후 20년 이내에 대부분의 교역품목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일 것이다. 전체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미국 등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산품에 대한 중국의 기술수준이 근접해옴에 따라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며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중국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한·중 FTA를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FTA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2012년 51.5%에서 올해 8월 59.5%로 상승했고, 지난해 6월 FTA 관련 '1380 콜센터' 설치 이후 관련 문의가 두 배로 증가 하는 등 중소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상담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상담은 물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역량별·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에 따른 국가별 통관애로 발굴, 국가별 시장·투자정보 제공 및 바이어 연계 등 지역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지역 중소기업들도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배가됐으면 한다. 나아가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넘어 '한국형 오픈챔피언'으로 거듭나는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길 기원해 본다.

양동옥의 S스토리

부모가 함께하는 내 아이 성교육 〈2〉

양 동 옥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한 학부모의 안색이 어둡다. '부모가 함께하는 내 아이 성교육' 강의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초조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질문 시간을 갖자 급하게 손을 들었다. 학부모의 고민은 이러했다. 중학생 딸이 음란물을 본 것 같다. 아이를 불러서 사실을 확인하니 한두 번 봤다고 실토했다. 곧바로 아이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옮겼다. 심하게 야단쳤기에 아이가 다시는 음란물을 보지 않을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또 봤다. 가족들이 함께 외출할 때도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한다. 음란물을 보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

필자에게 성 심리학 수업을 들었던 대학생들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중학교 때 학기말 시험을 끝내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음란물을 보려고 했는데, 컴퓨터에 그전에 없었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모에게 분노가 치밀며 반발심이 생겼다.', '아버지께서 출근길에 컴퓨터 연결선을 항상 뽑아가셨다. 그 연결선을 사서 부모 없을 때 음란물을 봤다. 그 당시 또래 대부분이 그렇게 몰래 봤다. 부모만 모르는 사실이다. 부모에게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꼭 전해 달라.' 해로운 매체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책략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관점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려준 대학생들은 이미 성인기에 접어들었기에, 과거 자신의 경험담을 일화처럼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음란물을 본 자녀를 심하게 야단치기도 하고 음란물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한다. 부모의 눈에 마냥 순수하고 맑은 아이가 음란물을 통해 성에 눈을 뜨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행여 음란물의 내용을 현실로 생각해서 청소년 모방 성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자녀가 음란물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지각했을 때, 자녀의 방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의 공동 장소인 거실로 컴퓨터를 옮기는 것은 자녀의 음란물 노출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 아닌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일찍 선물한 부모들은 자녀가 더 은밀하고 사적인 손안의 공간에서 다양한 성적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나 휴대폰에 청소년 유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부모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녀와의 대화이다. 부모가 자녀 방에 있던 컴퓨터를 왜 거실로 내놓았는지,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왜 설치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그냥 자녀가 음란물을 보았다는 사실에 미칠 듯 화가 치밀어 오르며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덜컥 겁이 난다. 특히, 음란물을 본 자녀가 딸이라면 성 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부모의 분노나 염려의 강도는 더 커진다. 결국, 부모는 자녀가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후속 조처를 한다. 바로 비난과 일방적 차단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결정에 성적은 존재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의 내내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려 한다. 머리로 익히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아이들은 교과서적인 답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한다. 부모는 먼저 자녀가 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 서툴러도 좋다. 실수해도 좋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자녀와 같이 찾아보고 배우면 된다.

"있잖아. 네가 음란물을 보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알게 됐는데, 생각지 못했던 거라 조금 당황했어.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너도 이제 커서 호기심에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음란물은 성적 욕망을 막 자극하기 위해 만든 거라서 현실과는 많이 달라. 그리고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 보니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고 자꾸 보고 싶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네가 그것을 자주 봤을 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너의 성 가치관에 해가 될까 걱정이네. 우린 널 믿어. 네가 잘 통제하리라 생각해. 혹시 마음먹은 것만큼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해줄래?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부모의 설명이 서툴러도 진실성이 있다면 아이들은 이내 부모의 말에 수긍한다.

기 고

제1회 시각장애인 음악회를 보고

양 성 관
동강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Light in the dark'~~ 지난 11월 26일 밤, 사직공원 못 가서 천변 우측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았다. 4층 강당입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강당 앞에 걸린 현수막에 쓰인 글씨가 눈에 띄었다. 'Light in the dark'. 글씨에 담긴 의미를 애써 생각하며 강당으로 들어섰다. 강당에는 굳이 구분하려하지 않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음악회 준비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 시각장애인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어둠 속에서 빛'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음악회였다. 이번 음악회는 2014년 광주문화재단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한울림 합창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20명과 비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되었고 금년 초부터 1주일에 1회씩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력이 대단했다. 안내하는 분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걸음씩 조심스럽게 무대로 걸어나와 독창과 중창, 합창을 하는 그들의 소리는 천상의 소리였고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음악회는 6시30분부터 시작하기로 되었는데 이미 6시 전부터 시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음악회 축하를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입구에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작은 모금함도 있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금함에 아름다운 마음들을 담는 모습도 아름다웠고, 행사를 준비하며 관람객을 맞이하는 복지관 직원들의 웃음과 친절함이 찾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음악회 시작 전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던 실무 담당자들이 어렵게 음악회가 열린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내빈들의 소개가 있은 후 곧바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음악회는 시각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되, 중간 중간에 후원하는 마음을 가진 외부인들의 특별출연과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섬기는 직원들의 특별출연으로 음악회의 열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음악회 내내 출연진들이 무대에 들고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찡하는 감동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분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면서 마이크에 이마를 찧는 모습들에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그 분들은 이마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금방 사라졌다.

마지막 무대에서 '소나무야~ 소나무야~'를 부르며 합창단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무대로 나올 때의 소리와 모습을 보며, 이것이 우리 사회를 살리는 하나 됨이고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1시간 반 동안의 연주회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차 순식간에 지나갔다.

연주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더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그들이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이 사회를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와 감사가 느껴진다. 자신들도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들의 노래를 듣고 박수와 환호성으로 답하는 관객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날마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공연을 위해 준비해 오신 실무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 음악회가 앞으로 10회, 20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정부에서 복지예산 분배를 할 때에는 힘 있고 큰소리치는 곳이 아니라, 복지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느 부분인지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배분이 필요할 것이다.

내년 제2회 공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벌써부터 머릿속에 아름답게 그려본다.

社 說

연말연시 소외계층에 사랑과 관심을

광주시 서구 금호1동에서 홀로 살다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최모 노인(75)이 지난 1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40만 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매달 노인연금 20만 원과 생계 급여 28만 원으로 생활해온 최씨는 그동안 아낀 40만 원을 성금으로 전했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세밑 한파를 녹이는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각 지자체와 기관, 개인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에 훈훈한 정을 선사하고 있다. 불우이웃에게 작은 정성을 전하는 구세군 자선냄비도 열기가 뜨겁다. 용돈을 기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시민들의 참여도 높다고 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금을 성금으로 내놓는 '얼굴 없는 천사'도 이제는 큰 화제가 아니다. 50대 남성이 담양군에 1~2억 원을 내리 기부하는가 하면 익명의 한 독지가는 보성군에 장학금 3억 원을, 영암에서는 한 남성이 익명으로 3억3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불우이웃을 위해 나누는 기부나 봉사활동은 참으로 아름답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선행'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들이 있기에 각박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기 침체로 기부하는 사람이나 액수가 줄고 있다지만 연말이면 불우한 이웃은 온정이 그립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아쉽다. 각급 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나 개개인의 작은 기부와 정성 또한 소중하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양극화는 그만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늘진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더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온정의 불씨를 살려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U대회 저비용 고효율 방안 찾아야

전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광주 하계U대회가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7월이면 170개 국 2만 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지구촌 축제가 열릴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렌다. 그러면서도 U대회 역시 또다른 '고비용 저효율' 국제행사로 오명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계 U대회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다. 더욱이 내년 7월 3일부터 12일 동안 열리는 광주대회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대회기간 국내외 관광객이 쓰고 갈 돈만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회 개최로 광주·전남에 생산 1조9000억 원, 부가가치 9000억 원, 고용인구만 2만 명이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때마다 자치단체장은 하나같이 몇 조 단위의 생산효과를 가져온다며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반대였다. 행사마다 적자를 면치 못했고 해당 지자체는 그 빚을 떠안아야 했다.

지난 9월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시만 보더라도 내년부터 15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개최지 발전에 영향이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국제행사를 치른 부산, 대구, 여수, 인천의 경우를 보면서 실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의심스럽다. 다행히 광주U대회는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선수촌을 전액 민자로 유치하는 등 운영비 절감 노력들이 엿보인다.

U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발전은 앞선 사례를 볼 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빚더미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개막 200일 전, 모든 분야에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찾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2018년 광주

토마스 맬서스는 1789년 역저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인구 증가는 식량 부족과 빈곤문제를 낳아 결국 빈부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 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오귀스트 콩트는 "인구 변동은 운명이다"고 설파했다. 인구 추세는 단기간에 바꾸기 힘들다는 의미로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극단적인 사건만 없다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란 얘기다.

하지만 두 학자의 논리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해당하지 선진국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선진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예측가인 해리 덴트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선진국의 인구 감소가 가져올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경고했다.

덴트는 한국이 2018년 인구가 최고치에 달한 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어 출산률이 최고치에 이른 후 47년 뒤에는 정확히 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40년 인구 추이를 보면 덴트의 예상이 현실이 될 우려가 높다. 광주는 2018년 151만8000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사실 광주시 인구는 1970년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이전에는 10만명이 증가하는데 4~5년 걸리던 것이 1975년부터 1992년까지는 3~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130만 명에서 140만 명이 되는데는 6년이 걸렸고 2002년 140만 명을 돌파한 후로는 12년째 140만 명 대에 머물러 있다.

성장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를 정점으로 꺽이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5년 후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32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진다. 지금은 하루 35명이 태어나고 19명이 사망하지만 18년 후에는 25명이 태어나고 26명이 죽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2040년 광주 시민의 평균 나이가 49.4세로 세종시 다음으로 젊다는 점이다. 암울해 하기보다 '인구절벽'이 오기 전에 이민자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차이나 프랜들리를 레인보우(다문화가정) 프랜들리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